

FAO, 아시아 조류독감 재확산 경고

국제식량기구(FAO)는 최근 공식 발표를 통해 중국, 타이, 베트남에서 조류독감 바이러스 H5N1이 새로이 발병하였고, 이는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여전히 그 지역에 잔존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는 것이라고 전하였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FAO 동물보건청(Animal Health Service) 국장 Joseph Domenech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몇 개월 전 대규모 발병 후 발병국들은 조류독감을 제어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번 새로운 발병은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그 지역의 어떤 영역 내에서는 계속 퍼지고 있고, 새로이 발병하여 인류의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조류독감 제어전략을 마련할 때에 바이러스가 계속 존재하고 있고 새로운 종류의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생겨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완전한 근절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야생 조류에서 바이러스의 높은 발병 위험의 존재하기 때문에 조류독감의 제어는 특히 복잡하고 어렵다.”

FAO는 각국 정부들이 최근 조류독감 발병사태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처한 것과 공식적으로 국제기구를 구성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것이고, 이는 각 국가의 감시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FAO는 조류독감 발병에 대한 감시와 즉각적인 대처를 그 지역의 모든 국가에 적용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한다.

“어떤 국가에서는 여전히 전염의 범위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아 더 많은 조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Domenech는 지적한다. 그는 “각국은 감시와 제어의 수단들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장기적인 계획으로서 조류독감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쉬운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성공적인 제어전략의 핵심 요소는 모든 생산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 민간 기업의 생물학적 안전성의 강화, 발병시 즉각적인 대처와 발병지역 내에서의 완전한 근절, 적절한 소독작업, 가축과 상품의 이동통제, 홍보 캠페인 등이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철저히 감시하는 것은 보완적인 선택사항이다. 재발을 막기 위한 적절한 예방조치들이 마련된 후에 조류사육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FAO는 각국이 조류독감의 대규모 발발 이후 시스템적인 데이터 수집 방식을 개선해 왔다고 말하였다. 몇몇 국가적·지역적 프로젝트를 통해 FAO는 데이터 수집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각국이 감시체계와 질병 보고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지원하고있다.

FAO의 지원을 통해 국제연구소와 공동 감시팀을 구성하여 조류독감의 확인 및 분석과 데이터 수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타이, 베트남 지역은 조류독감에 감염되기 쉬운 가금류의 사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조류독감의 재발 가능성이 있다. 최근 이러한 지역에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여전히 잔존한 것으로 나타나 조류독감의 재확산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 FAO
(채종현 pooh4514@hotmail.com 02-952-0729 지역 아카데미)